

보 도 자 료



*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 대외협력팀

팀장 이지영

Tel : 032-770-8630

E-mail : jylee@kopri.re.kr

◆ 2015. 1. 19. (월) 배포

◆ 총 3쪽 (본문 2쪽, 붙임 1쪽)

극지연구소, 국내에서 극지현장모니터링이 가능한 “극지종합상황실” 설치

- 극지연구소(소장: 김예동)는 인천에 위치한 극지연구소 내에 극지 인프라 및 남·북극 현장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극지종합상황실”을 설치하였다.
- 우리나라는 극지연구소를 중심으로, 남극에 2개 기지(세종, 장보고), 북극에 1개 기지(다산) 등 남·북극에 총 3개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연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까지, 극지 인프라가 최근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성장에 따라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증가된 만큼, 국내에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극지종합상황실 설치가 추진된 것이다.
- 극지종합상황실에서는 CCTV를 통해 남·북극 기지와 아라온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위성추적기를

활용하여 야외 현장 활동 인력에 대한 위치와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또한, 위성통신을 활용하여 아라온호와 헬기의 실시간 위치와 기상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어, 극지 현장과 국내에서 동시에 의사 결정과 실행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아울러, 위기 상황 발생시 현장을 통합한 비상상황실 체제로 전환, 현장과의 화상 연결을 통해 즉각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하며, 현장과 가까운 타국 선박 및 항공기를 파악하여 국제적인 지원 요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함으로써, 인명과 시설 보호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 이번에 설치된 극지종합상황실은 우리나라의 첨단 IT 기술이 적용된 선진화된 극지운영시스템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극지 인프라 운영 뿐 아니라 극지 현장 활동 인력에 대한 안전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붙임 : 1. 사진 자료 (극지종합상황실 설치 모습)

극지의 한국,
미래의 도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극지연구소 기술안전지원팀 이주한 팀장(☎ 032-770-8530 /010-3693-83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진 자료 (사진 제공 : 극지연구소)

■ 사진 : 극지종합상황실 설치 모습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 내)

